

## 중국 상하이도서관 한국 고서의 현황과 특징\*

The Pres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Rare Books  
in the Shanghai Library of China

옥 영 정 (Ok, Young Jung)\*\*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4 필사본           |
| 2. 한국 고서의 현황과 주제 | 3.5 영인본           |
| 3. 판본별 분석과 특징    | 4. 장서인에 드러나는 전래과정 |
| 3.1 금속활자본        | 5. 맺음말            |
| 3.2 목활자본         | <참고문헌>            |
| 3.3 목판본          |                   |

### <초 록>

이 글은 중국 상하이도서관(上海圖書館) 소장 한국 고서를 대상으로 서지적 분석을 진행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2014년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한국의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고서목록이 작성되었으며, 2015년에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이 글도 2014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의 특징적인 사항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 고서의 판본별 현황과 주제별 특징 등 서지학적 측면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총 187종 1,260책의 고서의 주제는 경·사·자·집의 사부(四部) 가운데 사부(史部)가 72종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였고, 각 유문별로는 별집류가 35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인다. 판본별로는 목판본이 79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속활자본 63종, 필사본 11종, 목활자본 29종, 영인본 4종, 석인본 1종 순이다. 5종의 조선전기 인쇄본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에는 세종 때 간행된 경자자본 자치통감강목 완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내사기록이나 장서인을 통해 상하이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서의 전래경위를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要語: 한국 고서, 국외소장고문헌, 상하이도서관, 상해도서관, 자치통감강목

\* 이 논문은 2015년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조사 보고서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단의 허락을 얻어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은 2020년 8월 25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중국 소재 한국 고문헌 소장현황과 디지털화'란 주제로 개최된 「2020년 한·중 고문헌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교수(gabinja@aks.ac.kr)

투고일: 2020년 11월 18일 최초심사일: 202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7일  
서지학연구, 제84집, 99-120,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99>

<ABSTRACT>

This article is based on a bibliographic analysis of Korean books of the Shanghai Library in Chi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2014, a list of ancient books was prepared by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and was prepared as a report in 2015. This article was also compiled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2014, focusing on identifying the overall status of Korean ancient books by the director of the Shanghai Library and checki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books. According to a survey on bibliographic aspect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ancient book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ject, 1,260 books of 187 types of ancient books accounted for 72 of the masters of Gyeong, Sa, Ja, and Jipu, accounting for more than one-third of the total, with 35 types of separate books being the largest number by type. By edition, woodblock prints were the most common with 79 types, followed by 63 types of metal type, 11 types of manuscript, 29 types of wood type, four types of photoprint and one type of stone type. Five early Joseon printed copies were identified, including the completion of the Gyeongjaja bon, which was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You can also check the history of Korean ancient books in the Shanghai Library through the records of the books and ownership stamp.

Key words: Korean ancient books, Korean rare books, Shanghai Library,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1. 머리말

이 글은 중국 상하이도서관(上海圖書館) 소장 한국 고서를 대상으로 서지적 분석을 진행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상하이도서관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주요 도서관 중의 하나로 장서 규모나 시설, 이용자 수 등의 여러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서(古書)는 특별히 관리되고 있으며, 등록된 수가 약 150만 책이고 고적선본(古籍善本)으로 구분된 것이 25,000여 종 15만 책에 이른다. 선본 중에는 송본(宋本) 164종, 금본(金本) 14종, 원본(元本) 125종, 당(唐)·오대(五代) 이전의 사경(寫經) 200여 종, 고본(稿本) 1,800여 종 등이 포함된다.<sup>1)</sup> 이처럼 고서의 수량이 많은 것은 개인장서가의 기증이 많았고 특히 1958년에 합중도서관(合衆圖書館)의 후신(後身)인 상하이역사문헌도서관(上海歷史文獻圖書館), 상하이과학기술도서관(上海科技圖書館), 상하이보간도서관(上海報刊圖書館) 등이 상하이도서관과 합병되면서 고적 장서수가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에 날인되어 있는 “항주섬씨장서(杭州葉氏藏書)”, “장흥왕씨이장루장(長興王氏詒莊樓藏)” 등과 같은 중국 개인장서가의 장서인이나 “합중도서관장서인(合衆圖書館藏書印)”, “상해시역사문헌도서관장(上海市歷史文獻圖書館藏)”, “상해시인민도서관장(上海市人民圖書館藏)”, “상해도서관장(上海圖書館藏)” 등의 도서관 장서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현황조사<sup>2)</sup>가 있기 전까지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에 대해서는 국내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상하이도서관 소장 고서를 활용한 연구도 중국내에서 송원본(宋元本) 등의 귀중한 중국고서를 중심으로 특별하게 이용되었을 뿐이며, 한국 고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현황은 물론 개별 서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서관 소장본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대부분 해당 주제에 따라 개별 서책을 인용하거나 소장처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현전하는 고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1998년에 간행된 『중국소장고려고적종록(中國所藏高麗古籍綜錄)』<sup>3)</sup>에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목록은 중국 전 지역에 소장된 한국고문헌 2,754부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서명(書名)과 수량만 기재된 간략한 목록집이다. 따라서 한국 고서의 전체적인 현황과 개별 고서의 특징을

1) 潘美月·沈津 編著, 『中國大陸古籍存藏概況』(臺北: 國立編譯館, 2002), 89.

2)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의 조사 작업은 한국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주관으로 2014년 10월 18일에서 22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이전에 상하이에 도착하여 사흘간 푸단대학교(復旦大學) 도서관의 한국 고서를 조사하였고 장소를 옮겨 18일부터 22일까지 직접 고서를 확인하며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단이 상하이도서관에서 작업을 끝마치기까지 한국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상하이도서관 그리고 상하이한국문화원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와 사전작업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짧은 시간에 작업에 집중하여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및 상하이도서관 고적부 황현궁(黃顯功) 주임과 귀리쉬안(郭立愷) 연구실장, 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논고는 함께 목록작업을 진행한 이귀원, 하혜정, 김소희, 오다연, 최중화, 김광섭 선생님과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바쁜 일정에도 즐겁게 가르침을 주신 이귀원, 하혜정 두 분 선생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3) 黃建國·金初昇 主編, 『中國所藏高麗古籍綜錄』(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8).

확인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목록의 작성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학술연구는 물론 문화유산으로서도 가치를 지니는 이 도서관의 한국 고서는 소중한 연구 자료로 남아 도서관에서 활용되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서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의 조사결과에 따라 한국의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고서목록이 작성되었으며, 2015년에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이 글도 2014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작성된 것으로 상하이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서의 전체적인 현황, 개별 서적의 가치 평가 및 학술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조사 결과 분석을 시도한 한국 고서는 187종 1,260책이다. 조사방식은 상하이도서관에서 1차적으로 제공하는 목록을 기초로 일람표를 작성한 후 목록작성을 위한 전산파일을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고서별로 형태서지 사항들을 기록하였고, 아울러 국내외에 존재하는 이본(異本)이나 관련 자료의 서지사항을 부기하였다. 이러한 조사표를 기초로 삼아 실물자료를 모두 살펴보았다. 특히 형태서지의 내용이나 특기 사항을 확인하고, 장서인이 남은 책을 판독하여 전존한 책의 유래를 밝혔으며, 내용서지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사실들을 첨가했다.

이 글에서는 조사된 서지기술 내용을 토대로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의 특징적인 사항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한국 고서의 판본별 현황과 주제별 특징 등 서지학적 측면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2. 한국 고서의 현황과 주제

상하이도서관에서 2014년에 조사한 책은 총 193종 1,320책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일본고서(5종 25책)와 중국고서(1종 35책)도 포함되어 있어서,<sup>4)</sup>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고서는 187종 1,260책이 되는 셈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발행 고서로 확정된 187종 1,260책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책의 청구기호는 상하이도서관에서 한국 고서에 한해서 “普”와 “善”으로 크게 구분하여 별치기호로 두었다. 이는 “普通本”과 “善本”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으로, 일반고서와 귀중서의 개념으로 구분한 것이다. 구분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데 조선본에 대한 간행시기 추정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기호를 부여한 것이므로 이번 목록의 작성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187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에 따라 주제별로 구분해 보면 경부(經部) 26종, 사부(史部) 72종, 자부(子部) 36종, 집부(集部) 53종으로 사부(史部)가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

4) 현지조사 당시 상하이도서관에서 미리 제시하고 정리 대상으로 삼은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한 결과 6종의 서적을 포함하여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이 6종은 2015년에 발행된 서지목록과 통계에서는 별도로 표시하여 구분하였고, 이 논고에서도 6종을 제외한 187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하였다.

한다. 다량의 고문헌 소장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집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사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유문별(類門別)로 살펴보면 별집류(別集類)가 35종으로 가장 많고, 전기류(傳記類)가 16종, 총집류(總集類)가 13종, 유가류(儒家類)가 12종, 잡사류(雜史類)가 11종, 정법류(政法類)가 9종, 보계류(譜系類)가 8종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별사류(別史類), 유서류(類書類), 사서류(四書類), 예류(禮類), 의가류(醫家類), 편년류(編年類) 등의 순이다.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는 집부의 별집류는 19세기의 금속활자인 전사자(全史字)로 간행한 문집이 많다. 특히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이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의 문집 『은송당집(恩誦堂集)』에서 발췌하여 간행한 시선집(詩選集)인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이나,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1824년에 편집·간행한 『풍산세고(豊山世稿)』 등은 비교적 전래가 드문 편에 속한다.

집부의 별집류를 제외하면 사부의 전기류·정법류·보계류·잡사류 등이 비교적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수집된 한국본 고서의 주제별 경향과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역사나 인물의 전기에 대한 관심 등 당시의 수집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부에서는 사서·소학·예서가, 자부에서는 유가서·유서·의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시기별로는 주로 영조·정조 연간과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서적이 많다. 이상의 주제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의 주제별 현황(187종)

| 區分        |        | 種數 | 區分        |        | 種數 |
|-----------|--------|----|-----------|--------|----|
| 經部<br>26종 | 總經類    | 1  | 子部<br>36종 | 儒家類    | 12 |
|           | 易類     | 2  |           | 釋家類    | 4  |
|           | 書類     | 4  |           | 兵家類    | 1  |
|           | 詩類     | 1  |           | 農家類    | 1  |
|           | 春秋類    | 3  |           | 醫家類    | 5  |
|           | 禮類     | 6  |           | 天文·算法類 | 1  |
|           | 四書類    | 6  |           | 藝術類    | 1  |
|           | 小學類    | 3  |           | 雜家類    | 4  |
| 史部<br>72종 | 正史類    | 2  |           | 譯學類    | 2  |
|           | 編年類    | 5  |           | 類書類    | 5  |
|           | 紀事本末類  | 3  | 集部<br>53종 | 總集類    | 13 |
|           | 別史類    | 6  |           | 別集類    | 35 |
|           | 雜史類    | 11 |           | 詩文評類   | 3  |
|           | 詔令·奏議類 | 6  |           | 隨筆類    | 1  |
|           | 傳記類    | 16 |           | 書簡類    | 1  |
|           | 譜系類    | 8  |           |        |    |
|           | 政法類    | 9  |           |        |    |
|           | 抄史類    | 2  |           |        |    |
|           | 地理類    | 4  |           |        |    |

### 3. 판본별 분석과 특징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의 판본은 크게 구분하여 간행본(刊行本)과 필사본(筆寫本)으로 나누어지고, 간행본은 다시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 목활자본(木活字本), 목판본(木板本), 석인본(石印本), 영인본(影印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본별로 살펴볼 때 목판본이 79종으로 가장 많다. 목판본 다음으로는 금속활자본이 63종으로 종수가 많으며, 목활자본 29종, 필사본 11종, 영인본 4종, 석인본 1종 등의 순으로 판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속활자본 63종에는 조선초기에 간행된 경자자본(庚子字本)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1종, 16세기에 간행된 후기초주갑인자본(後期初鑄甲寅字本)<sup>5)</sup> 2종, 을해자본(乙亥字本) 1종이 확인되었다. 또한 무오자본(戊午字本) 1종, 무신자본(戊申字本) 5종, 교서관필서체철활자본(校書館筆書體鐵活字本) 2종, 현종실록자본(顯宗實錄字本) 2종, 교서관인서체자본(校書館印書體字本) 4종, 한구자본(韓構字本) 2종, 임진자본(壬辰字本) 5종, 정유자본(丁酉字本) 4종, 정리자본(整理字本) 7종, 전사자본(全史字本) 12종, 정리자체철활자본(整理字體鐵活字本) 3종,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 12종 등 조선후기의 다양한 금속활자본을 확인할 수 있다.

목활자본 29종 중에서도 훈련도감자본(訓鍊都監字本) 2종, 지갯다리획인서체자본 3종을 비롯하여 광주필서체목활자본 1종, 자지동활자본(紫芝洞活字本) 1종, 학부인서체자본(學部印書體字本) 1종 등이 있다.

이상의 판본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의 판본별 현황

| 版本   | 種數 | 版本          | 活字名      | 種數 |
|------|----|-------------|----------|----|
| 木板本  | 79 | 金屬活字本<br>63 | 庚子字      | 1  |
|      |    |             | 乙亥字      | 1  |
|      |    |             | 後期初鑄甲寅字  | 2  |
|      |    |             | 戊午字      | 1  |
|      |    |             | 戊申字      | 5  |
| 木活字本 | 29 |             | 顯宗實錄字    | 2  |
|      |    |             | 校書館印書體字  | 4  |
| 筆寫本  | 11 |             | 壬辰字      | 5  |
|      |    |             | 丁酉字      | 4  |
| 影印本  | 4  |             | 韓構字      | 2  |
|      |    |             | 整理字      | 7  |
|      |    |             | 整理字體鐵活字  | 3  |
| 石印本  | 1  |             | 校書館筆書體鐵字 | 2  |
|      |    |             | 全史字      | 12 |
|      |    |             | 新鉛活字     | 12 |

5) 16세기말에 갑인자가 다시 구조되기 이전까지 사용된 초주갑인자로 주로 16세기에 사용된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 중에서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등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와 서지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금속활자본

다양한 종류의 금속활자본은 조선초기의 경자자본 1종, 16세기의 을해자본 1종, 그리고 후기초주 갑인자본 2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17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이다. 갑인자계열의 활자인 무오자,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를 비롯하여 교서관인서체자, 현종실록자, 정리자와 전사자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주요한 금속활자인본을 중심으로 개별 서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자자본은 1420년(세종 2) 11월에 착수하여 이듬해 6월에 완성한 활자인 경자자로 인쇄한 책으로서 국내에서도 인본의 전래가 드문 귀중본이다.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경자자 인본 중 1428년(세종 10) 경에 간행된 『자치통감강목』이며 전체 59권 59책이 모두 남아있는 완질본이다. 인쇄된 시점은 1428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에 낙질로 남은 책의 마지막 권에 1428년에 변계량(卞季良)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치통감강목』의 경자자본은 11항 21자본과 11항 22자본이 국내에 알려져 있으며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11항 21자본 계열이다. 표지는 중국식으로 개장하였지만 본문은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각 책마다 “경연(經筵)”의 인장이 대부분 날인되어 있어서 세종시기의 경연(經筵)에 쓰였던 책임을 알 수 있으며 함께 날인된 장서인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책의 전래경위 또한 매우 흥미롭다. 처음 경연청 소장본이었던 이 책은 그 이후로 청주한씨인 한숙창(韓叔昌, 1478-1537)과 남양홍씨 홍섬(洪瀾, 1504-1585)을 거쳐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약탈되었다. 이는 “미양문고(尾陽文庫)”로 날인된 장서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미양(尾陽)’은 나고야(名古屋)를 뜻하는 옛 명칭이며, 도쿠가와이에야스(德川家康)의 아들인 도쿠가와요시나오(德川義直, 1600-1650)가 소장한 장서에 주로 날인되었던 장서인이다. 이 장서인의 실물은 현재 도쿠가와미술관(德川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약탈되었다가 중국의 저명한 장서가 쉬수(徐恕, 1890-1959)에 의해서 이 책이 수집되었고 이후에 그의 소장본이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이와 동일한 인본으로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호림박물관, 개인 소장본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1책~5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인 『자치통감강목』은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전기의 금속활자인쇄술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며, 무엇보다도 국내에 그 전래가 없는 완질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을해자본으로는 16세기 후반에 인쇄된 『문산선생문집』 1책이 전해지는데, 문천상(文天祥, 1236-1283)의 시문집인 『문산선생문집』의 부록에 해당한다. 본래 『문산선생문집』에는 1455년 3월에 작성한 이규(李奎) 등의 서문 등이 남아있으며 본집 17권, 별집 6권, 부록 4권 등 모두 27권으로 편찬된 책이다.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총 4권 중 권1-2의 1책이 남아서 전해진 것이다. 국내에 을해자본으로 전해

지는 이 책의 인본은 고려대 만송문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지만 완질로 전해지는 것은 없고, 일본의 궁내청 서릉부에 27권 15책 전체가 남아있다.

후기초주갑인자본으로는 『분류보주이태백시』 16책과 『문선』 32책이 있다. 『분류보주이태백시』는 당나라의 시인 이태백(李太白, 701-762)의 시집 주석서로 송나라 양제현(楊齊賢)이 주석하고 원나라 소사빈(蕭士賓)이 보주(補註)한 것으로 조선에서 16세기 중반에 간행된 책이다. 권수(卷首)의 목록 1책, 본집 25권 14책, 이태백문집 1책 등 총 26권 16책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문선』은 양나라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 501-531)이 엮고 당나라 이선(李善)이 주석한 책이다. 이 또한 16세기 중엽에 후기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으로 60권 32책이 남아있는데, 완질로 남은 것으로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하며, 1428년에 변계량이 지은 주자발(鑄字跋)도 남아있다. “宣賜之記”가 날인된 점에서 내사본(內賜本)임을 알 수 있지만, 표지를 중국식으로 개장하면서 내사기면(內賜記面)이 떨어져 나가 반사(頒賜)받은 인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무오자본은 1622년(광해군 14)에 간행한 『황화집』 5책이 전해진다. 원래 『황화집』은 1450년(세종 32)부터 1633년(인조 11)까지 명나라 사신과 조선 문신이 주고받은 시문을 수록한 책이다. 사신이 다녀갈 때마다 별도로 간행하기도 하고 기존의 간본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시 간행하기도 하였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황화집』은 1450년에 간행된 것이며 이로부터 1633년까지 약 20여 차례 이상 별도의 『황화집』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1608년(선조 41), 1773년(영조 49), 1778년(정조 2)에는 그 동안의 『황화집』을 모두 모아 간행하기도 하였다.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1606년(선조 39) 조사(詔使)로 온 명나라 사신 유홍훈(劉鴻訓), 양도인(楊道寅) 등과 원접사 유근(柳根, 1549-1627) 등이 서로 주고받은 시를 모은 책이다. 이와 동일간본으로 일본 동경대도서관의 1책이 알려져 있고 국내에는 그 전래가 드문 책이다.

18세기의 인본이 많은 무신자본은 정구(鄭逋)가 편찬한 『심경발휘(心經發揮)』 2책을 비롯하여 이황의 『심경부주석의(心經附註釋疑)』 1책, 중국역사서인 『국어(國語)』 4책, 송시열의 『주문초선(朱文抄選)』 2책,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 7책 등이 있다. 대부분 글자 획의 마모가 있고 활자의 보자(補字)가 많이 나타나는 무신자의 후기본으로 영조대에 간행된 것이며, 각 책들이 모두 완질로 남아있다. 특히 『주문초선』은 조선후기의 장서가였던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수택본(手澤本)이다.

현종실록자본은 모두 2종이 확인된다. 현종실록자는 1677년(숙종 3)에 『현종실록(顯宗實錄)』을 인출(印出)하기 위하여 낙동계(洛東契)라는 단체가 만들어 사용하던 금속활자 3만5,830자를 구득하고, 여기에 새로 주조한 활자 4만 825자를 섞어서 쓴 활자다. 글자체가 해정하여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역대실록을 비롯하여 열성어제(列聖御製), 각종 지장(誌狀) 및 많은 일반서적의 인쇄에 사용되었다. 상하이도서관에는 1837년(헌종 3)의 『인릉지장(仁陵誌狀)』 1책과 1850년(철종 1)의 『경릉지장(景陵誌狀)』 1책을 확인할 수 있다.

무신자와 같은 갑인자계열의 금속활자로 1772년(영조 48)에 주조된 임진자의 인본도 5종이 확인

된다. 1786년(정조 10)에 간행한 『경장록(羹牆錄)』을 비롯하여, 정조연간에 간행한 『송이충정공주의(宋李忠定公奏議)』, 1790년(정조 14)에 간행한 책으로 이가환(李家煥, 1742-1801)과 이의준(李義駿, 1738-1798)이 기자정전(箕子井田)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설을 모아 편집한 『기전고(箕田攷)』 등이다. 특히 『송이충정공주의』는 중국 송나라 고종연간(高宗年間)에 승상(丞相)을 역임한 이강(李綱, 1083-1140)의 상주문(上奏文)과 대책(對策) 등을 모아놓은 서적으로 도서관(校書館)에서 임진자본을 처음 교정(校正)할 때 사용했던 초견본(初見本)이다.

정유자 역시 갑인자계열의 금속활자로 1777년(정조 1)에 평양감사 서명웅(徐命膺)에게 명하여 갑인자 15만 자를 더 주조하게 하여 만든 활자를 말한다. 상하이도서관에 소장된 이 인본은 4종이 확인되며, 3종이 정조연간에 간행한 초기의 정유자본으로 모두 완질이다. 간행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1781년(정조 5)에 간행한 『당송팔자백선(唐宋八子百選)』 3책, 1784년(정조 8)에 간행한 『어제유대소신료윤음(御製諭大小臣僚綸音)』 1책, 1794년(정조 18)에 간행한 『주서백선(朱書百選)』 2책이다. 이 중 『당송팔자백선』은 그 장황과 인쇄에 쓰인 종이가 특별한데, 사침안(四針眼)에 붉은색 실로 선장(線裝)하였고 표지는 옥색비단으로 중국종이(白綿紙)를 사용하여 특별히 고급스럽게 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의 정유자본으로는 1840년(헌종 6) 11월에 당시 봉조하(奉朝賀) 남공철(南公轍, 1760-1840)에게 하사한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이 있다.

도서관인서체자의 인본은 모두 4종이 확인된다. 이 활자는 숙종조 초에 도서관이 명나라의 간본에서 글자본을 택하여 주조한 것인데 주로 영조대에 간행한 후기도서관인서체자본으로 많이 남아있다. 상하이도서관에는 명나라 고헌성(顧憲成)이 저술하고 조선 후기의 문신인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편찬한 『경양유서(涇陽遺書)』 2책, 남학명(南鶴鳴)의 『회은집(晦隱集)』 2책, 조선 후기 위항시인의 시작집(詩作集)으로 최경흠(崔景欽) 등이 주축이 되어 편찬한 『풍요삼선(風謠三選)』 3책, 명대(明代)의 역사서로 1703년(숙종 29)에 이현석(李玄錫, 1647-1703)이 명(明) 태조(太祖)로부터 영명왕(永明王)까지의 사실을 강목체(綱目體)로 기술한 『명사강목(明史綱目)』 25책 등이 전해진다. 『풍요삼선』은 정원용(鄭元容, 1796-1870)이 작성한 서문(序文)의 작성연대로 볼 때 1857년(철종 8)경에 간행한 것이다. 『명사강목』은 1772년(영조 48) 3월 27일에 판중추부사에 재직 중이던 이창의(李昌誼, 1704-1772)에게 반사한 내사본이다.

한구자본으로는 『문원보불속편(文苑黼黻續編)』 6책, 『규화명선(奎華名選)』 3책의 2종이 확인된다. 『문원보불속편』은 1787년(정조 11) 이문원(摛文院)에서 편간한 『문원보불』의 속편으로 1852년(철종 3)에 간행되었다. 본래 『문원보불』은 모두 54권 28책으로 원집(原集) 40권 19책, 원집목록(原集目錄) 1책, 속편(續編) 10권 5책, 속편목록(續編目錄) 1책, 별편(別編) 4권 2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속편과 속편목록이 상하이도서관에 남아있다. 또한 1794년(정조 18)에 편간한 『규화명선』 17권 3책은 계묘년(癸卯年) 선집본(選集本)으로, 신축년(辛丑年) 선집본인 16권 3책이 결락된 책이다. 편제면(編題面)에 “壬子(1792)衰輯芸閣活印”의 간기가 있으나 계축년(癸丑年)인 1793년(정조 17)에 작성된 김희(金憲)의 서문과 『정조실록』 정조 18년 2월 기사에 수록된 간행사실에 따라 1794년

(정조 18)에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리자본은 모두 7종이 전해지는데, 활자 주성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초주정리자본이 5종, 재주정리자본이 2종이다. 먼저 초주정리자본으로는 1798년(정조 22)에 간행한 『두륙분운(杜陸分韻)』 2종(14책본, 1책본), 1805년(순조 5)에 간행한 『어정대학유의(御定大學類義)』 4책이 비교적 초기의 간행본이며, 1834년(순조 34)에 간행한 최치원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4책, 1854년(철종 5)에 간행한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풍고집(楓臯集)』 3책 등도 남아있다. 이 중에서 『두륙분운』은 당(唐) 두보(杜甫, 712-770)의 시선집인 『두율분운(杜律分韻)』과 송(宋) 육유(陸遊, 1125-1210)의 시선집인 『육율분운(陸律分韻)』을 함께 엮어서 간행한 책이다. 각각 39권 15책, 39권 13책의 방대한 분량인데 별도의 편제면(編題面)을 두고 간행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간본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상하이도서관에는 『두율분운』 5권 2책과 『육율분운』 36권 12책 그리고 또 다른 『육율분운』 3권 1책이 남아있다. 재주정리자본으로 1859년(철종 10)에 간행한 중국역사서인 『국어(國語)』 4책과 1896년(건양 1)에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이 편찬하고 학부(學部)에서 간행한 유학 해설서인 『유학경위(儒學經緯)』 1책도 있다.

철(鐵)을 활자재료로 사용하여 주조한 정리자체철활자는 주로 개인의 연보나 문집의 간행 등에 사용되었는데, 상하이도서관에는 모두 3종의 인본이 확인된다. 김시걸(金時傑, 1653-1701)의 연보와 행적 등을 수록한 『난곡선생연보(蘭谷先生年譜)』 1책, 이상황(李相璜, 1763-1823)의 행적을 모아 편찬한 『동어연보(桐漁年譜)』 1책, 1860년(철종 11) 무렵에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이 시헌법(時憲法)의 요점을 정리하여 서술한 『시헌기요(時憲紀要)』 4책이다.

조선말기 왕실족보의 간행에도 쓰였던 교서관필서체철활자는 2종의 인본이 남아있다. 1839년(헌종 5)에 중국의 『궤리지(關里誌)』를 토대로 화성(華城)의 궤리사(關里祠)에 관한 사적을 모아 편찬한 『동국궤리지(東國關里誌)』 1책, 1859년(철종 10)에 편찬한 『동래정씨파보(東萊鄭氏派譜)』 5책 등이다. 특히 『동래정씨파보』는 족보 간행에 대한 기록인 ‘유사(有司)의 명단, 책 간행에 대한 비용, 장인의 명단 및 족보 간행 일정과 족보 간행 비용을 마련한 인물 및 액수, 간행비의 지출내역’ 등이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족보를 인쇄하는데 쓰인 활자를 소유한 사람이 백기환(白琦煥)임을 표시하고 있어서 당시 민간소유의 활자로 간행한 족보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주목된다.

돈암(敦巖) 박종경(朴宗慶, 1765-1817)이 사사로이 만든 전사자본은 전통방식의 금속활자 인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인 12종이 남아있다. 인본으로는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이계집(耳溪集)』, 이정주(李廷柱, ?-1853)의 『몽관시고(夢觀詩稿)』, 이상적의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 박운수(朴雲壽, 1797-1841)의 『덕은유고(德隱遺稿)』,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연암집(燕巖集)』, 한치원(韓致元, 1821-1881)의 『동랑집(冬郎集)』, 풍산홍씨가(豐山洪氏家)의 『풍산세고』, 초계정씨가(草溪鄭氏家)의 『팔계정씨세고(八溪鄭氏世稿)』 등과 같이 주로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간행된 개인문집과 세고(世稿) 등이다. 이 밖에도 1883년(고종 20)에 편찬한 중국어 학습교재인 『화음계몽(華音啓蒙)』, 1903년에 법부(法部)에서 간행한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가 있다.

### 3.2 목활자본

상하이도서관에 소장된 목활자본은 모두 조선후기에 간행된 것으로 총 29종이 확인된다. 그 중에 그 명칭이 잘 알려진 것은 17세기에 간행된 훈련도감자와 교서관필서체자, 19세기의 지갯다리확인서체자, 광주필서체목활자, 학부인서체목활자 등이다.

훈련도감자는 훈련도감의 인력과 물력을 임시로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효종대까지 사용한 목활자다.<sup>6)</sup> 임진왜란 이전에 주조된 주요 금속활자 인본을 바탕으로 삼고 다시 나무로 새긴 것이어서 남아있는 금속활자의 명칭을 따라 갑인자체, 경오자체, 을해자체, 갑진자체, 병자자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상하이도서관 소장의 훈련도감자본은 모두 갑인자체훈련도감자로 명나라 황희(黃淮), 양사기(楊士奇)가 성조(成祖)의 명을 받들어 역대 주의(奏議)를 모아 편찬한 『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 4책과 당나라 두보(杜甫)·이백(李白)·한유(韓愈)의 저술로 17세기 중엽에 김옥(金堉, 1580-1658)이 편찬한 『삼대가시전집(三大家詩全集)』 10책이 전한다. 특히 『삼대가시전집』은 두보의 시문 4권, 이백의 시문 4권, 한유의 시문 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안동 권씨 권준(權僞, 1610-?)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교서관필서체자는 제작시기 및 제작과정에 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남용익(南龍翼)이 『기아(箕雅)』의 서문을 작성했던 시기인 1688년(숙종 14) 이전에 제작되었던 활자로 알려져 있다. 주로 시문집류의 간행에 이용되었는데 상하이도서관에는 숙종연간에 간행된 『위소주집(韋蘇州集)』, 『유문초(柳文抄)』 등의 2종이 전해진다.

이상의 목활자본 이외에도 중국의 『옥해(玉海)』의 형식으로 조선의 김진(金鎭, 1585-?)이 어휘집으로 편찬한 『신보휘어(新補彙語)』는 1684년(숙종 10)의 간본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歲在甲子首夏既役于雒東紫芝洞”의 간기가 있어서 일명 자지동활자본(紫芝洞活字本)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도서관본에는 윤상갑(尹相甲)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17세기의 목활자본으로 추정되는 것 중에 『좌전유초(左傳類抄)』 2책이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차천로(車天輅, 1556-1615)가 『춘추좌전(春秋左傳)』을 내용별로 분류하고 초록하여 편찬한 책이다. 간행장소는 확실하지 않으나 저자의 활동시기, 판식 등을 고려해보면 17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간행된 조선간본으로는 드물게 “차오산 찬(車五山 撰)”이라는 저자표시가 되어있다.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책의 권수(卷首)에 “반남박종두순옥지장(潘南朴宗斗舜玉之藏)”이라는 장서기가 적혀 있는데, 박종두는 19세기의 문신인 박돈수(朴惇壽, 1799-?)의 부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18세기 초기의 목활자 인본으로는 정창위 유정량(柳廷亮)의 증손인 유근(柳近)이 편찬한 『여문주석(儸文註釋)』 4책이 있다. 이 책은 중국의 육조(六朝), 당(唐), 송(宋)의 변려문(駢駢文) 165편을

6)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286.

골라 모아 주석을 덧붙여 간행한 변려문 선집(選集)으로, 『여문초(儼文抄)』·『여문정선(儼文程選)』과 더불어 조선후기 변려문 선집의 대표적인 자료이다. 유근은 처음에 김석주의 『여문초』를 얻은 후 그 소략함이 아쉬워서 강백년(姜栢年, 1603-1681)이 가려 지은 몇 편과 더불어 이식(李植, 1584-1647)의 『여문정선』에서 뽑은 20편, 『여계(儼啓)』에서 몇 편을 뽑아 합쳐서 『여문정선』의 수록체제를 따라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려문을 모아서 편찬한 자료로서 3종이 모두 비슷한 판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내에 그 현존본이 제법 많이 남아있지만 완질본은 드문 편이다.

19세기 이후의 목활자로는 지갯다리확인서체자와 광주필서체목활자, 학부인서체목활자 등을 들 수 있다. 지갯다리확인서체자는 대표적인 조선후기의 지방목활자로 글자자체의 특이한 획의 모양에 의하여 명명된 목활자이다. 대부분 19세기 후반 이후의 간본이 전해지는데 새김이 비교적 정교하고 자형적 특징은 확실히 구분되지만 보자(補字)가 제법 들어있고 글자의 마모가 뚜렷이 드러난다. 사용된 시기는 순조(純祖) 이후 고종조(高宗朝)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쓰였고, 호남과 호서지방에서 주로 민간출판물을 인쇄(印行)하는데 사용된 목활자이다.<sup>7)</sup> 특히 이 활자는 활자실물과 인쇄기구가 남아있으며 그 활자와 인쇄용구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입수, 보관해오고 있다.<sup>8)</sup> 상하이도서관의 지갯다리확인서체자본은 3종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여 엮은 『죽계지(竹溪志)』 1책, 조선 후기의 학자인 석호(石湖) 윤문거(尹文舉, 1606-1672)의 시문집인 『석호선생유고(石湖先生遺稿)』 4책, 김상일(金相日, 1756-1822)의 시문집인 『일엄유고(一庵遺稿)』 2책 등이다.

광주필서체목활자는 비교적 굵은 필서체의 목활자이며 1840년대에 초기 인본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100년 이상 호남지방의 민간출판물을 주로 인쇄하는데 쓰인 목활자이다. 상하이도서관에 소장된 이 인본으로는 『고금문(古琴文)』 1책이 있다. 이 인본은 1759년(영조 35)에 위백규(魏伯珪, 1727-1798)가 경전(經典)에서 심신(身心)의 안정에 긴요한 부분을 뽑아서 편찬한 것을 토대로 1875년(고종 12)에 임헌회(任憲晦)의 발문을 붙여 간행하였다.

학부인서체목활자는 대한제국기에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서적에 주로 사용한 인서체목활자를 말하며, 교과용 서적의 간행에 많이 쓰였다. 상하이도서관에는 1895년(고종 32)에 학부에서 편찬·간행한 소학교용 국사교과서인 『조선역사(朝鮮歷史)』 3책이 전해진다.

### 3.3 목판본

목판본은 79종이 확인된다. 주제별로는 경부의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예서, 사부의 정사류와 잡사류(雜史類), 일부 족보와 불경 등에 걸쳐있고, 간행 방식 및 간행 형태로는 지방 감영에서 간행한

7)尹炳泰,『朝鮮後期の活字と冊』(서울:凡友社,1992),439-453.

千惠鳳,『韓國木活字本』(서울:凡友社,1993),103-109.

8)千惠鳳,“印刷技術,”『科學技術文化財調査報告書Ⅱ』(서울:文化財管理局,1986),263.

간본과 금속활자의 번각본 등이 있다. 이 중 간행시기가 비교적 이르거나 특징적인 간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질이 모두 갖추어진 『고려사(高麗史)』 139권 72책이다. 정인지(鄭麟趾, 1396-1478) 등이 왕명을 받고 편찬한 『고려사』는 고려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등의 내용을 기전체로 정리한 관찬 사서이다.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규장각에 소장된 『고려사』 중 1613년 (광해군 5)에 태백산(太白山)과 오대산(五臺山) 사고(史庫)에 반사한 책과 동일한 판식을 나타내지만 마모된 상태 등을 고려해보면 인쇄시기는 보다 후대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책에는 “강도내부구장(江都內府舊藏)”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강화부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 완질로 남아있는 『고려사』 중에서 상하이도서관과 같이 72책으로 채워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경백편(五經百篇)』은 1798년(정조 22)에 정조가 내각(內閣)에 명하여 『주역(周易)』, 『서경(書經)』, 『시경(詩經)』, 『춘추(春秋)』, 『예기(禮記)』의 오경(五經)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100편을 뽑아서 편찬하도록 한 서적이다.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서경』의 내용이 결락된 4책으로 “규장지보(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어서 반사본(頒賜本)으로 추정되지만 표지가 개장되어 있어 반사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春秋左氏傳』은 『춘추』의 대표적인 주석서 중 하나로 노(魯)나라 좌구명(左丘明)이 주해(註解)하고, 이를 다시 진나라 때 두예(杜預, 222-284)가 집해(集解)한 책이다.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1797년(정조 21)에 춘추강자(春秋綱字)와 정유자(丁酉字)로 인출한 『춘추좌씨전』을 1798년과 1799년에 각각 번각한 책이다. 정조 때의 원본은 춘추 본문의 큰 글씨를 당시 조유흥(曹允亨)과 황운조(黃運祚) 두 명필(名筆)에게 쓰게 하여 간행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본이 드문 자료이며 권말에 활자본의 주자사실(鑄字事實)도 남아있다. 비단으로 특별히 장황한 책으로 표지와 제첨(題籤), 각포(角包)에 포갑(包匣)까지 당시 최고급의 재료로 제작한 책이다.

『박통사신석언해(朴通事新釋諺解)』는 김창조(金昌祚) 등이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를 당시의 사용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박통사신석』을 만들고 그것을 언해하여 간행한 3책의 목판본이다. 『박통사』의 언해본은 조선 중종(中宗) 때 최세진(崔世珍, 1473-1542)이 편찬해서 을해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고, 국내에 이 인본의 결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후 1677년(숙종 3)에 변섬(邊澣, 1631-?), 박세화(朴世華, 1637-?) 등이 다시 고증, 수정하여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김창조의 신석(新釋)은 1765년(영조 41)에 한문본 『박통사신석』과 언해본 『박통사신석언해』와 함께 목판본으로 평양에서 간행되었다.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1765년의 목판본으로 19세기의 역관이었던 이용림(李用霖, 1839-?)과 이용즙(李用楫, 1849-?)이 소장하고 공부했던 책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 책의 표지 좌측 하단과 표지이면 및 권말에 각각 기재된 장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림은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의 아들이었고, 생부는 이상건(李尙健 1812-?)이었으며, 이용즙은 이상건의 아들로 생부는 이상진(李尙晉)이었다. 역관 출신 두 사람이 소장했던 중국어 학습서로서 한중교류사와

역학서 유통의 편린(片鱗)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서적이다.

『농사직설(農事直說)』은 조선 세종 때의 문신인 정초(鄭招, ?-1434), 변효문(卞孝文, 1396-?)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농서인 『농사직설』과 조선전기의 문신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사계절의 농사와 농작물에 대한 필요사항을 6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한 『금양잡록(衿陽雜錄)』을 합한 목판본 1책이다. 『농사직설』의 판본은 처음 편찬된 이후 1429년(세종 11)에 관찬(官撰)으로 간행하여 이듬해 각도의 감사(監司)와 주, 부, 군, 현 및 경중(京中)의 2품 이상 관원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잘 알려진 현전본으로는 1581년(선조 14) 경에 『금양잡록』을 첨부한 판본, 1655년(효종 6)과 1686년(숙종 12)에 신숙(申誨, 1600-1661)이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에 수록·간행한 판본, 그리고 1744년(영조 20) 이후의 완산(完山) 중간본, 1806년(순조 6)의 태인방각본(泰仁坊刻本) 등이다. 신숙은 1655년에 쓴 『농가집성』의 발문에서 세종이 『농사직설』을 편찬한 이유와 편찬, 배포과정에 대해 소략하게 설명한 후 자신이 『농가집성』을 편찬한 동기를 설명하였다. 이 글을 통해 당시에 세종 때 간행된 『농사직설』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그래서 신숙은 『농사직설』에 속방(俗方)을 더하고 송시열의 요청으로 첨부한 주희의 권농문(勸農文)과 이후에 얻은 강희맹의 『금양잡록』과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를 더해서 편찬했다고 한다. 상하이도서관 소장 『농사직설』, 『금양잡록』 합본은 신숙의 『농가집성』이 편찬되기 이전에 간행된 책으로 만력 9년(1581)에 기록한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규장각 소장본, 고려대 만송문고본과 동일한 판식을 보이는 책이다. 국내에서도 전래가 드문 귀중본이며 권말에는 중국의 사상이자 정치가인 충도(仲弼) 왕도(王韜, 1828-1897)가 1886년에 쓴 지문(識文)이 기록되어 있고 권암(卷簾) 네윈타이(葉景葵, 1874-1949)의 장서인도 날인되어 있다.

동일판본이 2종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는 1777년(정조 1)과 1778년에 각각 간행된 『명의록(明義錄)』과 『속명의록(續明義錄)』이 있다. 이 책은 약한 왕위의 기반에서 왕권 강화를 원했던 정조의 바람이 책의 구성에 반영된 것으로 왕명에 따라 김치인(金致仁, 1716-1790) 등이 정조(正祖) 즉위 초에 있었던 홍상범(洪相範), 홍계능(洪啓能)의 역모 사건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상하이도서관본은 처음 간행한 직후에 대구감영에 내려 번각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며 『명의록』 3종과 『속명의록』 2종이 모두 동일한 판본이다.

17세기 말에 간행한 목판본인 『시수(詩數)』는 명나라 호응린(胡應麟, 1551-1602)이 중국 역대 고체(古體)와 근체시(近體詩)를 논하며 작가를 통론(通論)한 책으로, 내편(內篇) 6권, 외편(外篇) 6권, 잡편(雜篇) 6권, 속편(續篇) 2권 모두 20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이도서관본은 숙종시기에 영의정을 역임한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장서로 권수에 “남구만”, “운로(雲路)”, 권말에 “약천옹(藥泉翁)”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족보류 중에서 서지적으로 주목할 만한 서적은 『순흥안씨족보(順興安氏族譜)』를 들 수 있다.

9) 申誨, 『農家集成』跋文.

“臣於居鄉 試之有驗 信農家之龜鑑也 第恨印本無傳知者蓋寡茲.”

이 책은 1659년(효종 10)에 간행한 순흥안씨의 두 번째 족보로 6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족보 서문의 끝에는 “書寫營吏 李光景, 金希益 等 8人, 記官 金自完, 都色 丁泰升 等 2人, 刻手 義城權俊秀 等 25人, 印出匠 李頤叟 等 4人” 등과 같이 간행을 담당한 인물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비교적 간행시기가 이른 17세기 족보의 내용적 가치와 더불어 족보간행의 서지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책이다.

불교 전적 중에는 고려시대에 판각한 재조대장경(再彫大藏經)을 조선시대에 인출한 『신집장경음의수합록제십칠책(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七冊)』과 『아비담심논경(阿毘曇心論經)』이 전해진다. 『신집장경음의수합록제십칠책』은 후당(後唐)의 가홍(可洪)이 931-940년에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에 올라있는 1,076종 5,048권의 한문 경전 중 난해한 자구(字句)에 주석을 붙여 편찬한 불경이다.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의 간기가 남아있어서 1243년(고종 30)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재조대장경의 후쇄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비담심논경』은 563년에 북제(北齊)의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가 북천사(北天寺)에서 번역한 책이다. 마찬가지로 권말에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의 간기가 남아있어서 1244년(고종 31)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재조대장경의 후쇄본임을 알 수 있다. 2종의 불경이 동일한 표지와 제점의 형식을 보이고, 지질(紙質)과 책크기 등이 거의 같으므로 같은 시기에 인쇄하여 장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10책은 1682년(숙종 8)에 평안도 영변의 보현사(普賢寺)에서 판각한 목판의 후쇄본이다. 송(宋) 경덕(景德) 원년(元年)인 1004년에 양억(楊億)이 불조(佛祖) 이후 명승(名僧)들의 행적과 법어(法語)를 기록한 책이며, 중국의 교육학자이자 장서가인 왕배손(王培孫, 1871-1952)이 소장했던 서적이다.

### 3.4 필사본

상하이도서관에 현전하는 필사본은 11종이며 대부분은 19세기 이후에 필사된 책들이다. 조선 후기 문신들의 상소문 170편을 수록한 『공거문초(公車文鈔)』 3책, 경종연간의 신임사화(辛壬士禍)에 관한 기사를 모아 편찬한 『신임기사(辛壬記事)』 2책, 만동묘(萬東廟)와 관련된 사적 및 서간을 모아 필사한 『존주록(尊周錄)』 1책 등 비교적 분량이 적은 책도 있지만 102책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나, 별집을 포함하여 57책인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도 전해진다. 필사 형식은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를 사용하여 전사(轉寫)한 것이 4종이다. 이 중에서 거절로 남아있는 『동국문헌비고』와 『연려실기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국문헌비고』는 우리나라의 상고시대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전장 및 문물제도 전반을 분류하여 정리한 책이다. 1770년(영조 46)에 금속활자본 『동국문헌비고』가 100권 40책으로 완성되었다가, 정조 때 이만운(李萬運) 등에 의해 증정본(增訂本) 『동국문헌비고』로 만들어졌다. 그 후 고종 광무년간에 다시금 대폭적인 증보를 가해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년 인출)가 편찬되었다. 처음에 활자본 『동국문헌비고』의 간행과 배포가 이루어진 이후 1782년(정조 6) 2월에 정조는

이 책을 개수(改修)하고 보속(補續)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이만운에게 수행하도록 명하였으며 이를 증정본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활자본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사업이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고 체제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편찬하였으므로 서로 어긋나거나 그 사실이 거칠고 누락된 것이 많다는 것이었다.<sup>10)</sup>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모두 235권 102책으로 1782-1790년 사이에 이만운에 의해 1차 증정(增訂)되고 그의 아들 이유준(李儒準, 1760-1815)에 의해서 보완된 책으로 1809년(순조 9)에 편찬이 완성되었으나 인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는 책이다. 이유준이 작성한 지문에 의하면 자신의 집에서 한두 명의 동문생(同門生)과 함께 이만운이 편집한 『문헌비고』 중 쪽지를 붙인 것, 차기를 한 것 등을 모으고 또 각 중에 들어가 새로이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또 궁중에서 잃어버린 학교고(學校考)를 새로 편찬하여 1809년(순조 9) 겨울에 합하여 102책으로 완성하였고, 당시 사대부가에서 많이 등사해갔다고 한다.<sup>11)</sup> 따라서 이 책은 당시 사대부가에서 등사해간 여러 필사본 중에 한 질일 가능성이 있다.

증정본 『동국문헌비고』의 편찬형식은 『동국문헌비고』의 13고에다 물이고(物異考), 궁실고(宮室考), 왕계고(王系考), 예문고(藝文考), 씨족고(氏族考), 시호고(諡號考), 조빙고(朝聘考)의 7고를 더하여 모두 20고 246목 235권 102책으로 만들었다. 이를 『동국문헌비고』의 편목과 비교해보면 물이고를 상위고(象緯考) 아래에 추가하였고, 궁실을 여지(輿地) 아래에 추가하였고, 왕계·예문·씨족·시호·조빙을 예고(禮考) 아래에 추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증정본은 현재 국내에는 규장각, 장서각, 전북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세종대 등의 대학도서관과 간송미술관, 일부 개인소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두 필사본으로 그 서명이 대부분 『동국문헌비고』로 되어 있다. 대부분이 낙필본으로 남아있으며 완질본이 매우 드물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완질로 남아 있는 것은 서울대도서관과 전북대, 연세대, 간송미술관, 미의회도서관, 세이카도문고 등에 각각 한 질씩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도 영본으로 남아있는 책은 국내 여러 기관에서 흩어져서 전해진다.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국내에도 몇 질 남아있지 않은 증정본 『동국문헌비고』의 또 다른 완질본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소개할 『연려실기술』 또한 방대한 분량으로 전해지는 책이다. 이극익(李肯翊, 1736-1806)이 조선 태조-숙종까지의 역사를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로 기술한 이 책은 본집(本集) 30권 30책과 속집(續集) 8권 8책이 판식과 크기가 같아서 한질을 이루는데, 『연려실기술별집』 19권 19책은 판식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여러 차례 전사(轉寫)된 『연려실기술』의 특성상 판형이 다른 2종류의 필사본이 흩어져서 상하이도서관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2종 모두 권암(卷簾) 네원타이(葉景葵, 1874-1949)가 소장했던 서적이다.

10) 群書標記, 增訂文獻備考條. 正祖, 『弘齋全書』 18, 『群書標記』, 신승운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11) 李儒準 識, 修改本末 『增補文獻備考』 상-p.16

### 3.5 영인본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나 조선도서주식회사(朝鮮圖書株式會社)에서 발행한 영인본 자료도 4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는 1595년(선조 28)에 신충일(申忠一, 1554-1622)이 왕명을 받고 중국 건주(建州)를 다녀온 후에 그린 기정도(紀程圖)와 견문을 기록한 책이다. 1940년에 역사학자 이인영(李仁榮)이 부친 수락당(壽樂堂) 이춘섭(李春燮)의 회갑을 기념하여 총 200부를 영인했는데, 상하이도서관 소장본은 그 중 제101번째의 책에 해당한다. 이인영은 이러한 영인에 관한 정황에 대하여 자신의 저술인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 권8에 자세히 수록해두었다.

## 4. 장서인에 드러나는 전래과정

이 밖에도 내사본이나 장서인을 통해 상하이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서의 전래경위를 살펴볼 수 있다. 내사본으로 남공철에게 반사한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 김조순에게 반사한 『두륙분운』, 이창의에게 반사한 『명사강목』이 남아있다. 또한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본에 날인된 다양한 종류의 장서인은 그 서책의 내력과 중요도를 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흠어져서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장서는 해당 장서인이 날인된 서책의 수집, 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분석으로 당시 소장기관의 성격 또는 개인의 관심분야를 살펴볼 수도 있다. 한 서적에 두 종류 이상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도 많으며 대부분이 상하이도서관에 수집되기 전에 소장했던 중국의 개인소장가 및 기관의 장서인이다. 상하이도서관의 고서수집 역사와 관련지어 보면 거의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다. 중국 및 조선의 개인장서가와 기관의 장서 등 유심히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유형의 장서인 답인(踏印) 양상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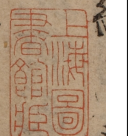
우선 중국 개인 소장가의 장서로 조선문인의 소장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청말의 유명한 판본학자이며 서화금석학자(書畵金石學者)인 왕슈(王修, 1898-1936) 소장의 조선본 『계한서(季漢書)』 20책을 들 수 있다. 왕슈는 저장(浙江) 창싱(長興) 사람으로 자는 계환(季歡) 또는 수지(修之)라고 하였고, 그 부인은 이름이 원홍(溫旬, 1898-1930), 자는 이앵(彝嬰)이었다. 왕슈는 그의 장서루 이장루(詒莊樓)에 조선과 일본의 각본을 많이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 조선 문신 유지발(柳之發, 1633-1705)의 소장이었던 목판본 『계한서(季漢書)』에는 유지발의 명(名), 자(字)와 관향을 새긴 인장 3과가 있고 연이어 왕슈와 그 부인의 장서인 9종이 날인되어 있다. 상하이도서관에는 『계한서』 외에도 3종의 한국본에 그의 장서인이 확인된다. 왕슈의 장서인으로서는 “장흥왕씨이장루장(長興王氏詒莊樓藏)”을 비롯하여 “왕수지인(王修之印)”, “계환(季歡)”, “이장루장서인(詒莊樓藏)”

藏書印)”, “왕수감장서화(王修鑑藏書畫)”, “왕계환(王季歡)” 등이 있고, 부인과 함께 사용하는 장서인으로 보이는 “장흥왕씨계환이앵부부인기(長興王氏季歡彝罍夫婦印記)”, 그리고 부인의 장서인인 “이앵(彝罍)”, “왕온굉(王溫匄)” 등이 보인다.

| 유지발(柳之發)                                                                          |                                                                                   |                                                                                   | 王修                                                                                |                                                                                   |                                                                                   |                                                                                   | 王修 溫匄                                                                             |                                                                                    | 溫匄                                                                                  |
|-----------------------------------------------------------------------------------|-----------------------------------------------------------------------------------|-----------------------------------------------------------------------------------|-----------------------------------------------------------------------------------|-----------------------------------------------------------------------------------|-----------------------------------------------------------------------------------|-----------------------------------------------------------------------------------|-----------------------------------------------------------------------------------|------------------------------------------------------------------------------------|-------------------------------------------------------------------------------------|
|  |  |  |  |  |  |  |  |  |  |
| 之發                                                                                | 起之                                                                                | 晉山之柳                                                                              | 長興王氏<br>詒莊樓藏                                                                      | 王修<br>之印                                                                          | 季歡                                                                                | 詒莊樓<br>藏書印                                                                        | 王修鑑<br>藏書畫                                                                        | 長興王氏<br>季歡彝罍<br>夫婦印記                                                               | 彝罍                                                                                  |

<그림 1> 『계한서』에 날인된 유지발과 왕수, 온굉의 장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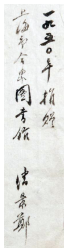
중국의 장서인 외에 조선의 장서인의 경우 기관 장서인과 개인 장서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에서 확인된 몇 종의 흥미로운 장서인으로는 세종대에 경연에 쓰인 책에 날인된 “경연”, 강화도 강화부 소장본에 날인된 “강도내부구장”, 일본 도쿠가와이에야스(德川家康)의 아들인 도쿠가와요시나오(德川義直)가 소장한 장서에 날인되었던 “미양문고(尾陽文庫)” 등과 비교적 이른 시기의 개인장서인을 들 수 있다. 특히 한숙창(韓叔昌, 1478-1537)의 “서원한씨(西原韓氏)”와 “숙창희경(叔昌熙卿)”, 홍섬(洪暹, 1504-1585)의 “남양후학홍섬퇴지장(南陽後學洪暹退之章)”은 경자자본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한숙창의 장남인 한자(韓慈)가 1545년에 사위인 홍섬에게 증여한 것이다. 홍섬은 이후 1552년에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이 책을 가져가 장황한 후 궤에 담아 보장(寶藏)하였다.

| 경연청                                                                                 | 한숙창(韓叔昌)                                                                            |                                                                                     | 洪暹                                                                                  | 德川義直                                                                                 | 徐恕                                                                                    | 상하이도서관                                                                                |
|-------------------------------------------------------------------------------------|-------------------------------------------------------------------------------------|-------------------------------------------------------------------------------------|-------------------------------------------------------------------------------------|--------------------------------------------------------------------------------------|---------------------------------------------------------------------------------------|---------------------------------------------------------------------------------------|
|  |  |  |  |  |  |  |
| 經筵<br>3.9x3.9                                                                       | 西原韓氏<br>2.7x2.7                                                                     | 叔昌熙卿<br>2.6x2.6                                                                     | 南陽後學洪暹<br>退之章<br>2.9x2.9                                                            | 尾陽文庫<br>6.7x6.7                                                                      | 鄂渚徐氏臧本<br>2.9x3.0                                                                     | 上海圖書館藏<br>2.4x1.7                                                                     |

<그림 2> 장서인으로 확인되는 『자치통감강목』의 전래 경로

또 다른 기관 장서인으로 72책이 남아있는 『고려사』가 있다. 강화부 소장의 “강도내부구장(江都

內府舊藏)”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국내에 완질로 남아있는 『고려사』 중에서 상하이도서관과 같이 72책으로 제작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은 1950년에 중국의 장서가이자 목록학자인 관징정(潘景鄭, 1907-2003)이 상해시합중도서관에 기증한 후 상해역사문헌도서관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강화부                                                                               | 관징정 → 합중도서관                                                                       | 역사문헌도서관                                                                           | 상하이도서관                                                                              |
|-----------------------------------------------------------------------------------|-----------------------------------------------------------------------------------|-----------------------------------------------------------------------------------|-------------------------------------------------------------------------------------|
|  |  |  |  |
| 江都內府舊藏                                                                            | 一九五〇年捐贈<br>上海市合衆圖書館 潘景鄭                                                           | 上海市歷史文獻圖書館藏                                                                       | 上海圖書館藏                                                                              |

<그림 3> 『고려사』의 전래 경로

그 외에도 조선 후기 개인의 장서인으로 이하곤의 “재대(載大)”, “월성지이(月城之李)”, “하곤(夏坤)”, “완위각도서기(宛委閣圖書記)”, 남구만의 “남구만(南九萬)”, “운로(雲路)”, “약천옹(藥泉翁)”, 김조순의 “김씨(金氏)”, “사원(士源)”, “지수은사신조순기(祇受恩賜臣祖淳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준(權僞, 1610-?), 정환유(鄭煥猷, 1735-?), 박제문(朴齊聞, 1787-?), 윤겸규(尹謙圭, 1764-?) 등 17-18세기 인물의 장서인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19세기 이후 인물의 장서인이다. 이 중에 이하곤, 남구만, 김조순의 장서인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 인물 | 이하곤                                                                                 |                                                                                     |                                                                                     |                                                                                     | 남구만                                                                                 |                                                                                     |                                                                                      | 김조순                                                                                   |                                                                                       |                                                                                       |
|----|-------------------------------------------------------------------------------------|-------------------------------------------------------------------------------------|-------------------------------------------------------------------------------------|-------------------------------------------------------------------------------------|-------------------------------------------------------------------------------------|-------------------------------------------------------------------------------------|--------------------------------------------------------------------------------------|---------------------------------------------------------------------------------------|---------------------------------------------------------------------------------------|---------------------------------------------------------------------------------------|
| 印文 |  |  |  |  |  |  |  |  |  |  |
| 관독 | 月城之李                                                                                | 夏坤                                                                                  | 載大                                                                                  | 宛委閣圖書記                                                                              | 南九萬                                                                                 | 雲路                                                                                  | 藥泉翁                                                                                  | 金氏                                                                                    | 士原                                                                                    | 祇受恩賜臣祖淳記                                                                              |
| 서명 | 朱文抄選                                                                                |                                                                                     |                                                                                     |                                                                                     | 詩數                                                                                  |                                                                                     |                                                                                      | 杜陸分韻                                                                                  |                                                                                       |                                                                                       |

<그림 4> 조선의 개인 장서인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중국 상하이도서관에 소장된 187종 1,260책의 고서를 대상으로 주제별, 판본별 현황 및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는 전체적으로는 조선후기의 자료가 대부분이지만, 간행시기가 이르거나 국내에서도 드물게 남아있는 완질본이 비교적 많이 소장되어 있으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표지를 중국식 장황으로 개장한 서적도 다수 보이며, 개장한 책에는 대부분 중국인 소장자의 지기(識記)가 필사되어 있다. 그리고 『당송팔자백선』, 『춘추좌씨전』, 『어정대학유의』 등 18세기와 19세기초 중국식 용지와 비단을 써서 특별히 장황한 인쇄본은 당시 최고 수준의 서책 제작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자료이다.

상하이도서관 한국 고서의 주제별 특징은 경·사·자·집의 사부(四部) 가운데 사부(史部)가 72종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였고, 각 유문별로는 별집류가 35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인다. 별집류에 속하는 책은 주로 19세기에 간행한 문집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경부에는 사서류·예류 서적이, 사부에는 전기류·잡서류·정법류·보계류 서적이, 자부에는 유가류 서적이 많은 편이다. 별집류를 제외하고 사부의 전기류, 정법류, 보계류, 잡서류 등이 비교적 많은 것은 다른 소장처에서 일반적으로 수집되어 전해지는 한국본 고서의 주제별 경향과 약간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판본별 현황은 목판본이 79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속활자본 63종, 필사본 11종, 목활자본 29종, 영인본 4종, 석인본 1종 순이다. 5종의 조선전기 인쇄본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1428년의 경자자본 1종, 16세기의 후기초주갑인자본 2종, 을해자본 1종, 목판본 1종이다. 금속활자본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무오자, 무신자, 한구자, 교서관인서체자, 임진자, 정유자, 정리자, 전사자, 학부인서체자 등 조선후기 금속활자로 간행된 책이 여러 종 남아있어서 조선후기 금속활자인쇄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목활자본은 모두 조선후기에 간행된 것으로 17세기의 훈련도감자를 비롯하여 19세기 지갯다리획인서체자, 광주필서체목활자 등으로 인출한 다양한 인본이 소장되어 있다.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는 목판본은 문집을 비롯하여 교화서(敎化書), 불서(佛書), 농서(農書), 족보(族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있다. 간기를 통해 그 간행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중 간행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17세기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필사본은 거질의 증正本(增正本) 『동국문헌비고』와 『연려실기술』이 완질로 남아있다.

이 글은 자료의 전체적 현황과 성격 및 그 서지적 가치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 이 가운데 중요 전적에 대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조사된 한국 고서의 목록과 해제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유형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각 항목별로 주요 한국 고서를 새롭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간략한 내용으로 현존본의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현존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함께 국내외 다른

이본과의 관련성에 대한 별도의 연구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2015년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목록집을 발간하고, 상하이도서관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던 한국 국회도서관에서 2018년에 경자자본 자치통감강목을 디지털이미지로 만들어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연구를 위한 토대작업으로 매우 긍정적이며 중요한 활동이다. 이 글이 향후 연구자들의 관심과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申沅. 『農家集成』跋文.  
群書標記, 增訂文獻備考條. 正祖, 『弘齋全書』18, 『群書標記』, 신승운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李儒準 識. 修改本末 『增補文獻備考』.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김효경, 안혜경. “중국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수집과 특징.” 『서지학연구』 80(2019. 12). 239-267.  
潘美月・沈津 編著. 『中國大陸古籍存藏概況』. 臺北: 國立編譯館, 2002.  
尹炳泰. 『朝鮮後期の活字와冊』. 서울: 凡友社, 1992.  
千惠鳳. 『韓國木活字本』. 서울: 凡友社, 1993.  
千惠鳳. “印刷技術.” 『科學技術文化財調査報告書Ⅱ』.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6.  
黃建國・金初昇 主編. 『中國所藏高麗古籍綜錄』.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8.

####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 HyeBong. 1986. “printing technology.” *Scientific and Cultural Heritage Survey Report II* (p. 263). Seou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un, HyeBong. 1993. *Korean wood type Book*. Seoul: Bum Woo Sa.  
Huang, Jianguo, & Kim, ChoSeung. 1998. *A Collection of Ancient Korean Books in China*. Shanghai: Chinese Dictionary Press.

- Kim, DooJong. 1974. *History of Korea's Old Printing Technology*. Seoul: Tamgudang.
- Kim, HyoKyong, & Ahn, hyeKyong. 2019. "Collection and characteristics on Korean rare books in Zhejiang Library of Chin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0: 239-267.
- Pan MiYue, & Shen jin. 2002. *Background of the Preservation of Ancient Books in Mainland China*. Taipei: National Compi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
- Yoon ByungTae. 1992. *Type and book of the late Joseon Dynasty*. Seoul: Bum Woo Sa.